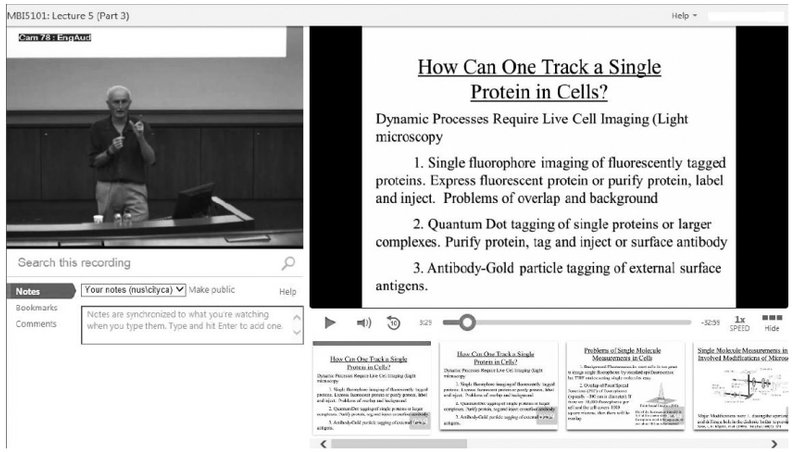
용하고 있다. 단지 오프라인 강좌와 같은 비중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않도록, 3학점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경우 1학점만 인정된다. 또한 한 학기에 최대 9학점까지만 온라인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IT 도구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내 구성원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학기 초에 일주일은 100% 온라인만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e-learning week'를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시연

대부분의 외국 유수 대학들은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강좌는 계절 학기에 국한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하거나, 특수 목적 대학원의 경우에만 학점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온라인 강좌를 학점화 하는 방식에도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이다. 온라인 강좌로 개발한 콘텐츠를 플립러닝이나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교수학습방법과 연계시키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액티브 룸과 같은 최적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습자가 향후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교육에 노출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CIT는 학습자가 21세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온라인 교육 정책은 우리 대학의 교육 정책 방향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살기

류 동 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학부생

쉽게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주장이 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다. 어떤 글이 '쉽게 읽힌다'는 말은, 그 글이 처음부터 타인에게 읽히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그 글은 왜 타인에게 읽혀야 하는가?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결코 '쉽게 읽히는 것' 그 자체로만 그칠 수 없다. 쉽게 읽혀서, 글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일차적인 목적일 뿐 글쓰기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글의 내용이 타인에게 진심으로 수용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심지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타인의 '이해'만 구하는 듯하는 신문기사나 설명문조차 암묵적으로는 '특정한 사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거나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궁극적 목적은 여전히 모종의 '수용'에 있겠다. 실제 수용의 양상은 논리적 설득일 수도, 정서적 공감일 수도, 그밖의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라도 가독성은 기껏해야 좋은 글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텍스트 과잉 시대의 지친 독자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해'와 '수용'의 개념적 차이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소 거친 구분이지만 이해가 뇌의 인지적 작용이라면 수용은 마음의 의지적 작용이다. 이해가 글을 읽고, 글의 의도를 글에서 단지 발견하는 것이라면, 수용은 글의 의도를 나의 의도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그에 따라 살겠다고 마음먹는 거다. 이해된 내용은 읽는 이의 삶과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수용된 내용은 이미 그의 삶의 일부이다. 그렇기에 글을 읽는 이는 글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수용하지는 않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해했기에'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글쓰기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라기보다 수용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글이 단지 이해될 뿐 수용되지 않는다면, 글을 단지 읽어낼 뿐 그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글의 내용이 단지 그의 삶 외부의 사실로 존재할 뿐 그의 삶의 일부로서 편입되지 못한다면, 글을 읽고 쓰는 시간이란 단지 읽고 쓰는 훈련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어떤 글이 아주 쉽게 읽힌다면, 가능성은 크게 넷 중 하나이다. 글을 너무 잘 썼거나, 너무 당연한 말을 썼거나, 읽는 이가 듣기 좋은 말이거나, 무슨 말을 썼든 읽는 이가 관심이 없거나. 글을 너무 잘 썼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나머지의 이유 때문이라면 문제가 크다. 무의미한 글이거나 아첨하는 글이거나 무시당하는 글인 탓이다. 너무 잘 쓴 글은 흔치 않으므로, 너무 쉽게 읽히는 글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글이 쉽게 읽히는 이유는 문장의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글 자체의 가독성이 뛰어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정반대로 글쓴 이나 읽는 이의 지적 태만 때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혹독한 수련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겠으나 후자의 경우는 일종의 지적 기만으로서, 비록 쉽게 이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읽는 이에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아직 정돈되지 못한 글이라도 명백한 '수용'의 의도에서 논쟁적 주장을 담은 글은 읽는 이에게 원래 생각을 강화시키든 변화시키든 반드시 모종의 흔적을 남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좋은 글이라면 쉽게 읽히기만 하기보다 읽는 이의 삶을 바꾸는 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글만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글은 때때로 너무 무력한 도구이다. 그렇지만 변화라는 것이 항상 거창한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건 아니다. 사소한 인식의 전환 혹은 미약한 신념의 획득일지라도, 읽는 이에게 수용된 글의 요점이 그가 당면한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다. 많은 경우, 그것조차 최선을 다하는 글쓰기에서나 기대해 봄직한 목표일 것이다. 요컨대 '좋은 글'은 '이해'도 잘 되고 '수용'도 잘 되는 글이다. 그런데 어떤 글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 이해부터 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이해는 좋은 글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어떤 글이 온전히 이해되더라도 얼마든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수용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글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이때 글쓰기 능력을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좋은 글'을 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글쓰기 테크닉은 대체로 글을 '수용'시키는 능력보다는 글을 '이해'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해'의 요점은 적절한 문법의 사용에 있는 반면, '수용'의 요점은 내용의 타당성과 진정성, 즉 설득력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통사론의 영역에 속한다면 후자는 의미론의 영역에 속하는 셈인데, 문법의 사용은 비교적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의미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가르치기 매우 힘든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여기서 문법은 좁은 의미의 맞춤법을 넘어, 사회의 분화된 장(field)마다 특수하게 존재하는 글쓰기 양식을 뜻한다. 예컨대 학문장에서 통용되는 문법으로 논문양식이 있다면, 문학장에서 통용되는 문법으로는 시나 소설양식 등이 있고, 언론장의 문법으로는 기사양식이 있다. 대부분 문법이 그렇듯, 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훈련을 통한 숙달

을 요하는데, 대개 어느 정도 청킹(chunking)으로 정형화된 것이므로 반복적 사용을 통한 암기와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정형화된 글쓰기양식을 통해, 장 내부에서 같은 문법을 공유하는 구성원끼리는 효율적인 상호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의미는 기본적으로 유동적이면서 비정형적인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이미 확립된 규칙에 입각한 기계적 적용의 대상이 되는 문법과는 달리, 의미는 거의 예술가적 자질에 근거한 창조적 변용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의미의 활용은 쉽게 학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는 선천적 재능이거나, 아카데미에서 습득한 명제적 지식과는 구별되는, 삶으로 체득되는 모종의 지혜에 더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평범한 글쓰기 수업의 영역을 넘어선다. 특히 글의 진정성은 오직 글이 글쓴이의 삶과 공명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글의 수용가능성, 즉 설득력은 논리적인 타당성보다도 글쓴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좌우된다. 요컨대, 좋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좋은 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삶의 이야기를 가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더 관련을 맺으며, 통상적인 글쓰기수업의 영역 밖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가장 이상적인 글쓰기수업은 글쓰기수업 영역 밖의 글쓰기수업, '인생'수업이어야 하는지도 모른다.